

# 챔피언결정전 미디어데이, 웃음 속 신경전

### 프로농구 안양 KGC·서울 삼성, 플레이오프 우승 열망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을 앞둔 안양 KGC와 서울 삼성 간 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20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2016~2017 KGC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미디어데이는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KGC는 김승기 감독과 오세근, 양희종이 참석했고 삼성은 이상민 감독과 주희정, 김준일이 함께 했다.

이들은 서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플레이오프 우승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 "군 입대해야 하는데 빨리 끝낼 생각 없냐" 김준일 도발한 양희종  
KGC 양희종이 포문을 열었다. 양희종은 삼성 김준일에게 "군 입대를 축하한다. 5월8일에 입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챔피언결정전을 빨리 끝내면 입대 전까지 많이 쉬 수 있다. 4차전에서 끝낼 생각은 없냐"고 질문했다.

7차전까지 가지않고 4차전에서 끝내겠다는 양희종의 도발 질문에 김준일은 웃으며 "급방 끝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7차전까지 가서 우승하고 싶다. 우승 반지를 끼고 입대할 것이다"고 맞받아쳤다.

KGC 오세근은 삼성 주희정의 심기를 건들었다. 오세근은 "우리팀 사익스가 몸 컨디션이 너무 좋다. (주)희정이형은 이제 전성기가 자랐고 나이가 많아서 체력적으로 힘들어 보인다. 사익스 어떻게 막을 것인지 궁금하다"며 심기를 건들었다.

이에 주희정은 "물론 체력적으로 힘들다. 사익스는 스피드가 좋다. 막기 힘들겠지만 내에겐 경험이 있다. 일단 내일 훈련을 하

면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왜 더티한 플레이 하나" 양희종 도발한 주희정  
일격을 당한 주희정이 이번에는 양희종의 심기를 건들었다. 주희정은 "(양)희종이는 같은 팀에서 동고동락한 사이다. 원래 착한 선수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티한 수비가 늘었다. 특히 우리팀 문태영에게 심하다. 왜 그런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질문을 받은 양희종은 껄웃은 웃음을 지으며 "더티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 정해진 룰 안에서 몸싸움을 할 수 있다. 나는 합법적으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나도 (문태영에게) 많이 맞았다. 격렬한 몸싸움도 경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대꾸했다.

주희정의 질문에 오세근과 김승기 감독도 양희종을 감쌌다. 오세근은 "(양)희종이형은 먼저 더티한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감독 역시 "나도 선수들에게 거칠게 수비하지 말고 상대가 때리면 먼저 맞으라고 지시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 자신만한 김승기 감독, 신중했던 이상민 감독  
일찌감치 정규리그 우승을 통해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KGC는 울산 모비스를 시리즈 전적 3-0으로 제압하고 챔피언결정전에 선착했다.

체력적인 부분에서 삼성보다 우위에 선 KGC 김승기 감독은 자신감이 넘쳤다. 김 감독은 "내 입에서 4차전에서 끝낸다는 말을 원할 것 같다. 재미있는 경기를 하면서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열린 2016-2017 KGC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미디어데이에 KGC, 삼성 감독 및 선수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5차전에서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다. 5차전을 하면서 7차전까지 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다.

반면 삼성 이상민 감독은 신중했다. 이 감독은 "나 역시 일찍 끝내고 싶은 마음이다. 하지만 KGC는 쉬운 상대가 아니다. 체력적으로 우리보다 앞설 수 있지만 전부가 아니다"며 "우리는 6강 4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정신력과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승기 감독은 이상민 감독에게 "챔피언전에서 각 팀을 상징하는 색깔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치르는 것이 어떨까요"라며 "원정 유니폼을 배제하고 KGC의 붉은색

홍 유니폼과 삼성의 파란색 홈 유니폼을 7차전까지 입자는 제안이었다.

이에 이상민 감독은 "좋다.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자"고 화답했다. KBL 역시 "양 팀이 합의를 한다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김 감독의 제안에 힘을 실어줬다.

7전선승제로 펼쳐지는 안양KGC와 서울 삼성의 챔피언결정전에서 각 팀 선수들은 홈 유니폼만 입고 경기에 나선다.

KGC는 첫 통합 우승이자 5년 만의 챔피언전 우승, 삼성은 11년 만의 챔피언전 우승 도전에 나선다. 챔피언결정전은 오는 22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1차전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김민근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창립 28주년 기념행사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은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뮤즈라이브홀에서 임직원과 함께 창립 28주년 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28년간의 KSPO의 발자취 영상 시청 및 기념품 수령, 기념 촬영 등으로 이뤄졌다.

이창섭 이사장은 "모든 구성원들이 더 많은 성취와 목표를 갖고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 공단의 미래 비전이자 성장의 원동력이다. 국민 스포츠 복지구현의 가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주간 행사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3일부터 29일까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함께 2017년 체육주간 행사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체육주간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매년 4월 마지막 주간으로 지정돼 있으며 올해로 59번째를 맞는다.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직장 및 학교 등은 이 기간 동안 자체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실시한다.

체육주간에는 '우리 함께 운동해요'라는 표어를 중심으로 국민의 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운동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소외계층 이동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잠실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관람을 지원하고, 광산골프장은 20일 아동복지시설 원생을 대상으로 골프 체험 교실을 연다.

체육주간과 함께 진행되는 28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관람료가 50% 할인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또 개인별 체력 측정 서비스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국민체력100'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민근기자

### 고창군청 여자 유도부 선수들 전국실업유도 최강전서 선전 '쾌거'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7 전국실업유도 최강전'에서 고창군 소속 여자 유도부 선수들이 선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하주희(-52kg) 선수는 개인전 금메달을, 임정수(-78kg) 선수는 개인전 동메달을 땀으며, 단체전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하주희 선수는 '2016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2016 순천만 국가정원립 전국유도대회' 등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임정수 선수 또한 전략적으로 +78kg급에서 78kg으로 체급을 변경, 대회에서 3위의 성적을 거뒀으며 지난해부터 가장 많이 활약한 선수로 올해도 유망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창군청 여자유도부는 단체전에서 선수들이 합심해 단결된 모습으로 실력을 발휘하며 2위의 값진 성과를 거뒀다.

고창군은 지난 2009년 직장운동경기부 유도 실업팀을 창단한 이후 올 초 하주희 선수를 영입했고 현재는 흥기문 경기지도자와 선수 6명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다.

고창군청 여자유도부 흥기문 경기지도자는 "선수들이 군민들의 뜨거운 응원에 힘입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앞으로 훌륭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꾸준히 훈련에 매진하여 더욱 향상된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바르샤, 유벤투스에 잡혀 챔피언스리그 4강행 '무산'

### 세 골차 이상 대승 필요한 바르셀로나, 0-0으로 비겨

FC바르셀로나가 기대했던 대승과 반전은 없었다. 심지어 득점도 없었다.

바르셀로나가 유럽 정상에 향한 도전을 멈췄다.

바르셀로나는 20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프누에서 열린 2016~2017 유럽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유벤투스(이탈리아)와 0-0으로 비겼다.

2년 만의 우승컵을 노렸던 바르셀로나는 1차전에서 0-3으로 패하는 등 180분 간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유벤투스에 4강행 티켓을 내줬다.

유벤투스는 2년 전 결승에서의 패배를 보기 좋게 설욕했다.

바르셀로나는 이날 경기를 앞두고 파리생제르맹(프랑스)과의 16강 2차전을 떠올

렸다. 당시 1차전에서 0-4로 대패한 바르셀로나는 2차전에서 기적같은 6-1 대승으로 8강 무대를 밟았다.

세 골차 이상의 대승이 필요한 바르셀로나는 리오넬 메시-루이스 수아레스-네이마르를 전면에 내세워 다시 한 번 반전을 꿈꿨다.

하지만 유벤투스는 파리생제르맹과 달랐다. 지오르지오 키엘라니와 레오나르도 보누치가 중심을 잡은 수비진은 바르셀로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바르셀로나는 전반 19분 메시의 원발슛이 골대를 살짝 벗어나면서 기회를 날렸다. 1분 뒤 네이마르의 슛은 위력이 떨어졌다.

유벤투스는 촘촘한 수비로 바르셀로나를 괴롭혔다. 간혹 빈틈도 보였지만 이때마다

골키퍼 잔루이지 부폰이 공을 걸어챘다.

전반을 소득없이 마친 바르셀로나는 후반에도 유벤투스 공력에 애를 먹었다.

메시의 프리킥과 네이마르의 슛은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다.

유벤투스는 막판까지 완벽에 가까운 수비로 실점을 막았다.

또 다른 8강전에서는 AS모나코(프랑스)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를 3-1로 제압했다.

원정으로 치러진 1차전에서 3-2로 이긴 AS모나코는 합계 6-3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AS모나코는 전반 17분 만에 두 골을 가져가며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다.

/김민근기자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유벤투스와 0-0으로비겨 4강 진출이 좌절됐다. 아쉬어하는 메시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